



3면

자치경찰 시행 1주년 맞아

전주매일

www.jjmaeil.com

2022년 6월 23일 목요일 (음 5월 25일) 제3042호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퇴임 앞둔 송하진 도지사

8년 전북도정 발자취를 걷다

▶ 관련기사 16면

“냉철한 머리로 일하는 유능한 행정가이자, 따뜻한 가슴으로 일하는 착한 정치인이 되고자 노력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지난 4월 송하진 지사가 정계은퇴를 선언하며 발표한 기자회견문 중 한 대목이다. 경제학자 마셜이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 취임 연설에서 언급한 ‘냉철한 두뇌와 따뜻한 가슴’이란 말을 평소 좋아했던 송 지사는 16년이라는 정치 생활 동안 실용주의에 기반한 따뜻한 정치인이 되고자 노력했다.

모든 도박이 그러했듯이 송 지사의 꿈과 목표도 전북발전이었다. 제조업 기반이 부족한 전북에선 기업의 투자와 정책적 지원을 유도하기 어렵다는 데에 그는 주목했다. 그래서 그는 전북 안에서 실현 가능한 돌파구를 찾았다. 이뤄지지 않을 것만 같던 협약이나 공허한 협약을 남발하기보다는 일단 지역이 잘하는 일, 그리고 앞으로 잘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성장동력으로 만드는 데 집중했다.

전주시장 시절 추진한 전주한옥마을 명소화 사업과 탄소산업은 송하진 표 ‘내발적 발전’의 출발점이 되었다. 그는 전주한옥마을과 한스타일 사업을 통해 전주시를 연간 관광객 천만 명이 찾는 관광도시로 바꿔놓았고, 일본이 점유한 탄소섬유 시장을 효성과 손잡고 개척해 대한민국 탄소산업의 시작을 알렸다.

특히 탄소산업은 전북의 미래산업에 대표되는 상징이 됐다. 탄소산업은 지역에서 시작한 산업이 국가전

락산업에까지 이른 유일무이한 사례로 송 지사는 지금의 탄소산업 생태계를 만든 장본인이기도 하다. 전주 시장 시절 탄소산업의 가능성을 확인한 송 지사는 도지사 취임 이후 탄소소재법 제정을 주도해 국가 주도 탄소산업 육성 계기를 마련했고, 법 개정을 통해 탄소산업의 총괄 거점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을 전북에 안착시켰다. 또, 일본의 수출규제로 몸값이 급상승한 탄소섬유를 국가전략산업으로 각인시켰고 효성의 1조원 투자협약 체결과 이행 탄소산업 소부장 특화단지, 스마트 그린산단 지정, 탄소특화산업단지 국가전략 지정 등 기업투자와 정부의 지원을 받아냈다.

이를 토대로 지역의 낙후된 산업지도도 과감히 바꿨다. 시작은 전북의 기술력과 연구개발기능 강화였다. 전북연구개발특구와 군산강소특구, 친환경차 규제자유특구 등 R&D기반을 만들었고, 농촌진흥청 이천과 농생명 SW융합 클러스터 추진 등 농생명산업의 연구기능도 강화했다. 전국 유일의 홀로그램 기술개발 사업 확정 등 신기술 산업에 주력했다.

터덕대던 새만금 개발에 구체성과 속도를 더한 것도 송 지사의 공이 컸다. 특히 50년 숙원이었던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확정해 공항오지 전북의 역사를 종식하게 되고, 항만과 철도, 도로 등 이른바 교통 트라이포트를 구축해 내부개발의 동력을 마련한 것은 큰 업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새만금 개발공사 설립과 새만금 개발청 군산 이전으로 새만금 개발을 주도할 행정체제를 정립하고, 군산 김제, 부안이 참여한 새만금

‘냉철한 머리, 따뜻한 가슴으로’



전주시장 시절 추진 탄소산업, 전북 미래산업 대표로 기술력·SOC 확보, 농업 변신 등 낙후된 산업체질 개선 역사·문화 복원·계승으로 도민 자존의식 고취 노력

권역 행정협의회를 구성해 상생협업의 안 도출 등 갈등 해결의 장을 꾸린 것도 중요한 성과다. 환경생태용지 2단계 사업 추진,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 등 내부개발이 본격화되고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사업이 추진되면서 SK컨소시엄 2조원 투자와 OS글로벌 새만금 특장차센터 구축 등 대기업의 투자도 이어졌다.

확보한 기술력과 SOC는 산업의 혁신과 선점에 힘이 됐다. 주력산업인 자동차와 조선산업은 혁신을 통해

고도화했다. 그 결과 GM군산공장이 떠난 자리에는 명신 등 전기차 기업이 참여하는 군산형 일자리가 들어왔고, 상용차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구축과 노후산단 대개조도 시작했다. 조선산업은 중소선박 기자재 품질 고도화로 기술력을 높였고, 현대중공업 설득에 올해 초 조선소 재가동을 이뤄냈다.

재생에너지 산업으로 시대의 화두가 된 탄소중립 이슈도 선점했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비전을

선포해 새만금을 풍력, 태양광 등 대체에너지의 메카로 육성했다. 새만금에서 생산된 대체에너지를 활용해 그린수소를 생산하는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조성을 비롯해 전국 최대 규모 완주 수소충전소 준공, 수소융합품검사지원센터 유치 등 수소경제 기반도 빠르게 다졌다.

송 지사는 농업의 변신도 꾀했다. 농민이 농업의 주체가 되는 삼각농정위원회를 출범시켰다. 협치를 통해 전국 광역 지자체 최초로 농민공익수당을 지급했고, 전국 최초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시행했다.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도 송 지사의 관심사였다. 전국 최초 그린 바이오 벤처펀드 조성사업에 선정됐고, 종자와 식품, 미생물·농기계·첨단농업 등을 연계한 아시아스마트농생명벨

리 사업을 추진했다. 전북의 큰산비 유채 송기면 선생과 서예대가 강암 송성용 선생을 조부와 부친으로 둔 송 지사는 지역의 문화와 예술 융성에도 관심을 쏟았으며 산업화에도 노력했다. 전라감영복원, 동화농민혁명 횡포현 전승일 국가기념일 제정, 풍소천일염업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 등 문화유산의 정체성 확립과 함께 전라유학진흥원과 서예비엔날레전시관 건립 추진, 국립익산박물관과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 전북학연구원 등을 열어 문화기반 시설을 확충했다.

전국 최초 전북투어패스 도입과 태권도원 개원, 국립산시도자연휴양림과 1000리길 조성도 송 지사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사업들이다. 또한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 새만금세계잼버리 등 굵직한 대규모 행사를 유치하기도 했다.

이처럼 산업화 과정에서 거둬낸 낙후로 잃어버린 호남재일도시라는 영광을 찾고, 누적된 열과피를 딛고 도민들이 전북 변혁의 주역으로 나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복원,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다양한 국내외 행사를 유치함으로써 송 지사는 도민의 자존의식을 고취하고자 했다.

역대 전북도지사 중 최초로 3선에 도전한 송 지사는 예상치 못한 컷오프 압축에 걸리게 됐다. 컷오프 과정에 반발 여론이 거셌지만 그는 “그동안 민주당에 대한 은공을 갚으려 한다”면서 정계은퇴를 선언했다.

퇴임을 앞두고 송 지사는 앞으로 전북을 위해 여러 활동을 펼치겠다는 뜻을 밝혔다. 40년을 전북을 위해 일해 온 송 지사의 퇴임식은 오는 29일 도청에서 소박하게 치러질 예정이다. /김경수 기자



익산 대표 종교문화 관광지로 거듭

시, 나바위성지에 문화체험관 건립 100억 투입 2024년 완공 목표

익산 나바위성지에 전시와 공연시설을 갖춘 복합문화시설이 들어서면서 지역의 대표 종교문화 관광지로 거듭난다. 시는 복합문화시설 건립에 이어 각종 보수 정비 사업을 병행해 종교문화유산을 활용한 관광산업활성화에

나설 예정이다. 22일 시는 나바위성지에 전시시설과 공연장, 연수시설 등을 갖춘 나바위성지문화체험관을 건립한다고 밝혔다. 국·도비 40억원을 포함해 총 사업비 100억원이 투입되며 2024년 완공을 목

표로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 기본 및 실시계획 용역을 시작으로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2천 300㎡ 규모의 전시시설과 피정·연수관 시설을 포함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된다.

전주교 전주교구에서 시행하는 이번 사업은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와 전북

도로부터 보조금 교부 결정을 받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됐다.

앞서 시와 전주교 전주교구(김선태 교구장주교)는 나바위성지 의의를 계승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성지문화체험관 건립을 강력하게 건의한 바 있다.

양 기관은 나바위성당이 지닌 종교·문화·역사적 의미 보존과 김대건 신부의 최초 기착지라는 독자적인 콘텐츠를 활용한 관광 지원에 뜻을 모으고,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열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와 함께 지역의 각종 문화행사와 전시회를 개최할 수 있는 야외공연장과 주변 순례길도 정비도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국가 사적인 익산 나바위성지는 한국인 최초 사제인 김대건 신부가 1845년 중국 상해에서 사제서품을 받고 조선 땅에 첫발을 내딛은 장소로 전주교구사적 의의가 깊은 성지이다. /익산=이재훈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전주매일 캠페인